

선 생 님 을 위 한 영 문 법 ③

읽기 문법

문장에서 단락으로

문장을 읽는 힘과 단락을 읽는 힘은 같은 힘이다.

읽기 문법 — 문장에서 단락으로

선생님을 위한 영문법 ③

판형	215 × 285 mm · 2도(먹 · 주묵)
판면	150 × 235 — 본문 100 · 사이 8 · 방주 42
본문	Noto Serif KR 8.5pt · 자간 -8% · 행간 2.05
원문	영어 EB Garamond

이 책이 파는 원전 가운데 어니언스와 네스필드는 저작권이 풀렸다. 판차는 부록 B에 적었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London: Swan Sonnenschein. 제3판 1911. 3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London: Macmillan. 1898(5부 편성)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東京: 泰文堂. 續訂五版(서문 1927. 3)

차례

제 1 부 · 문장은 날개가 아니다

01	문장을 무엇으로 세나	5
02	중문은 단문의 연속이다	18
03	잇는 말 없이 나란히 놓기가 먼저였다	29

제 2 부 · 하나가 주고 하나가 從이다

04	병렬에도 실질적 종속이 있다	41
05	한 문장에 주된 생각은 하나다	55
06	그러면 요지는 어디에 있나	67
07	되받음이 主(주)를 표시한다	79

제 3 부 · 그것이 자리로 나타난다

08	가운데보다 처음, 처음보다 끝	90
09	한정하는 것을 앞에 둔다	102
10	끝까지 매달아 두는 문장	113
11	맞세우면 둘이 같이 보인다	126

제 4 부 · 잇는 말은 표시일 뿐이다

12	관계는 이미 있고 잇는 말은 특정한다	138
13	that 절은 원래 그것이었다	152
14	as는 all so 였다	166

15	작으로 가는 말	177
----	----------	-----

제 5 부 · 단락

16	지문 하나를 끝까지 — 여러 편	189
17	세 원전이 어디까지 갔나	203
18	선 것과 안 선 것	214

부 록

A	부호와 범례	226
B	원전 자료	233
C	도해 모음	241
D	남은 질문	249

제 1 부 · 문장은 날개가 아니다

01

문장을 무엇으로 세나

좌표 메타 — 세는 단위 · 인용 6개소 · 도해 3점 · 짜임 6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이거 한 문장이예요 두 문장이예요?"

마침표를 세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묻는 데는 까닭이 있다.

The road was closed, so we took the long way round.

마침표는 하나다. 그런데 일어난 일은 둘이고, 우리말로 옮기면 두 문장이 된다. 학생은 일을 세고 교사는 마침표를 센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셋째 것을 센다 — 주어와 동사를 몇 쌍 찾았는가.

마침표를 센다	지면에 보이는 것
일을 센다	뜻으로 세는 것
주어 - 동사를 센다	구조로 세는 것

셋이 늘 같은 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 열여덟 장이 문장을 단위로 세므로, 무엇을 세는지를 첫 장에서 정해야 한다.

이 장이 답할 질문: 문장 하나는 무엇이 하나인가.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문장이란 무엇인가 — 두 부분 ★

… 其集團にして或るもの (person or thing) を主題とし、そのものに就き何等かの事を述べ、以て纏まりたる 一箇の完全なる意義を表はすものを文 (Sentence) と云ふ。… 即ち文は其主題なる部分と、其主題たるものにつきて何事かを述べる部分との二部を 有せなければならぬ (特に省略する場合は別として)。前者を主語 (Subject) と稱し、後者を述語 (Predicate) と云ふ。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6-§ 7

원서 2-3쪽

원문 일본어

… 그 집단이 어떤 것(person or thing)을 화제로 삼고,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서술하여 하나로 완결된 뜻을 나타내는 그 집단을 문장 (Sentence)이라고 한다. … 곧 문장은 그 화제가 되는 부분과 그 화제에 관해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가져야 한다(특별히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앞의 것을 주어(Subject), 뒤의 것을 서술어 (Predicate)라고 한다.

[강조는 인용자]

「화제로 삼는다(主題とし)」가 이 절의 낱말이다. 주어는 먼저 놓인 이름이 아니라 화제로 삼은 것이다.

②-2 그리고 어니언스가 같은 정의를 적는다 ★★★

'Much cry little wool', 'Like master like man', 'Borrow sorrow', 'One man one vote'. These are quite as much sentences as 'The man lives alone', 'Queen Anne is dead'. A sentence consists of two parts, a part naming something, and a part saying something about what is named (that is, the Subject and Predicate respectively).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89

원서 154쪽

원문 영어

「울음은 많고 털은 적다」, 「그 주인에 그 하인」, 「빌리면 근심」, 「한 사람 한 표」. 이것들도 「그 사람은 혼자 산다」, 「앤 여왕은 죽었다」와 똑같이 문장이다. 문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무언가를 이름 짓는 부분과, 이름 지어진 것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는 부분이다(곧 각각 주어와 서술어다). 두 정의가 같다.

	앞부분	뒷부분
범론 § 6-§ 7	화제로 삼는다	그것에 관해 서술한다
어니언스 § 289	무언가를 이름 짓는다	이름 지어진 것에 관해 말한다

1917년의 일본어 책과 1903년의 영국 책이 같은 두 부분으로 문장을 정의한다.

그리고 둘 다 그 정의에 「동사가 있어야 한다」를 안 건다. ②-4

다만 범론 §28 은 「오늘의 영어 문장은 반드시 **정형동사**를 포함해야 한다

(때로 말로 나타나지 않는 일은 있어도)」로 그 자리를 **생략**으로 처리하고,

어니언스 §290 Obs.1 은 「동사가 생략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르다」로 못 박는다 — **저본이 갈린다.**

논증은 일치이지 「누가 먼저」가 아니다. 설계 §0

②-3 세는 단위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

而して上述の如き従文を一箇以上含む文は主語及び述語の關係が重複するを以て之れを 重複文 (Complex Sentence) と稱し、之れに對して主語及び述語の關係の單一なる文を 單一文 (Simple Sentence) と云ふ。尙茲に注意すべきは單一文必ずしも短文にあらざる事で 主語及び述語の關係は單一なるも説明的の語句を多く伴ひて頗る長き文を見る事は決して 珍らしくない。

위와 같은 종속절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중복되므로 복문(Complex Sentence)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하나뿐인 문장을 단문(Simple Sentence)이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문이 반드시 짧은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하나뿐이어도 설명하는 말과 구를 많이 거느려 상당히 긴 문장이 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On the other side he looked down into a deep mountain glen, wild, lonely, and shagged, the bottom filled with fragments from the impending cliffs, and scarcely lighted by the reflected rays of the setting sun. — Irving.

此文は可なり長いが主語は **he**, 述語は **looked** で他は附屬の語句に過ぎない. 이 문장은 상당히 길지만 주어는 **he**, 서술어는 **looked**이고, 나머지는 부속된 말과 구에 지나지 않는다.

세는 것이 정해졌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몇 개. 그리고 길이는 세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서른여섯 낱말짜리 예를 들어서.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4

원서 17쪽

원문 일본어

②-4 그런데 「정형동사가 없는 문장」도 문장이다

②-2 의 어니언스가든 넷에는 정형동사가 없다. 그런데 그는 똑같이 문장이라 적었다. 그리고 이렇게 잇는다.

The same principle is seen at work in children's attempts to express thought in sentence-form; e.g. a child may say 'Papa hat', meaning 'Papa has a hat on', 'Give papa his hat', or 'Here is your hat, papa'. So 'Tick-tock bell' for 'The clock is striking'.

같은 원리가 아이가 생각을 문장 꼴로 나타내려 애쓰는 데서도 나타난다 — 이를테면 아이는 「아빠 모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빠가 모자를 쓰고 있다」·「아빠에게 모자를 줘」·「여기 아빠 모자 있어」를 뜻한다. 「똑딱 종」도 「시계가 치고 있다」를 그렇게 말한 것이다.

두 부분이 있으면 문장이다. 정형동사는 두 부분을 잇는 흔한 방법이지 문장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이 03장으로 이어진다 — 잇는 말 없이 나란히 놓는 것이 먼저였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0

원서 154쪽

원문 영어

②-5 그리고 주어는 주제를 지정한다 ★★

主語は文の主語たるものを指定する語なるを原則とする。凡そ主題を指定するには そのものゝ名を以てするが最も自然であるから主語の本體は名詞である。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주제가 되는 것을 지정하는 말이다. 대체로 주제를 지정할 때에는 그 이름을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의 본체는 명사이다.

「주제(主題)」가 1917년 문법서의 주어 정의 안에 있다. ②-1 이 「화제로 삼는다」로 옮긴 그 낱말이다 — 원문은 둘 다 主題 이고, §6-§7 에 있던 것이 §27 에서 주어의 정의로 굳는다. ①권이 축3을 「전달」이라 부르며 세운 그 자리가 주어의 정의에 이미 들어 있었다.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7

원서 19-20쪽

원문 일본어

①권 03장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1 원전 — 세는 법을 먼저 정하고 시작한다

호소에는 문장의 갈래(단문·복문·중문·혼합문)를 세우기 전에 세는 단위를 못 박는다.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다. 그리고 곧바로 길이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2 그리고 그 갈래가 넷이다

… 此内 (1) に屬するものは二箇以上の全く獨立したる單一文を何等かの便宜のために或種の 關係語 (主として對等接續詞) を以て連結したるに止まる文で此種の文をば 合成文 (Compound Sentence) と名付ける。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5

원서 17-18쪽

원문 일본어

… 이 가운데 (1)에 속하는 것은 둘 이상의 완전히 독립된 단문을 어떤 편의를 위해 일정한 관계어(주로 등위접속사)로 연결한 데 그치는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을 중문(Compound Sentence)이라고 한다. 「편의를 위해」와 「연결한 데 그친다」가 이 절의 두 낱말이다.

단문	주어 - 서술어 관계 하나	
복문	관계가 중복된다	종속절이 있다
중문	단문을 편의로 이었다	각각 독립을 잃지 않는다
혼합문	둘이 섞였다	

중문은 「단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단문 여럿을 편의로 이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서술어 관계로 세면 이어나 안 이어나 수는 같다.

법론 § 24

이 책이 고른 단위인 마침표로 세면 다르다 — ④-3 의 나.다가 그것이다. → 02장

3 오늘의 학교문법 — 넷은 왔는데 세는 법이 안 왔다 M7

오늘 교재에서 이 자리는 이렇게 나온다.

재구성

문장은 **단문·중문·복문**으로 나뉜다. 절이 하나면 단문, 등위절이면 중문, 종속절이 있으면 복문이다.

갈래는 왔다. 그런데 「무엇을 세는가」가 안 왔다 — M7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연 교재에서는.

확정서술 C1

범론 1917

오늘 재구성

세는 것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	절의 수
길이	세는 것이 아니다 — 명시	안 다룬다
혼합문	있다	없다(대개)
중문의 성격	편의로 이은 것	등위접속사로 이은 것

잘린 것은 두 가지다.

하나 — 「단문이 짧은 문장은 아니다」는 단서. 그것이 없으면
학생이 길면 복문으로 센다.

둘 — 「편의로 이었다」는 성격 규정. 그것이 없으면 중문이 한
종류의 문장이 되고,
이어나안 이어나 같다는 것이 안 보인다.

세는 단위가 바뀐 것 자체는 답을 안 바꾼다. 절을 세는 잣대도 부속구를 안 세므로

②-3 의 범론 예문 같은 긴 단문에 1을 준다. 다만 오늘 교재는 그 1을 지면에 말해 주지
않는다 — 범론이 명시로 붙여 둔 단서가 안 왔기 때문이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1 이 책이 세는 것을 여기서 정한다 ★★★

세 가지 세는 법이 있었다. ① 그중 하나를 고른다.

	어떻게 세 나	이 책에서
마침표	지면에 보이는 대로	쓴다 — 다만 그것이 왜 단위인지를 05장 이 댈다
주어-서술어 관계	구조로	쓴다 — 문장 안을 볼 때 범론 § 24
일(사건)	뜻으로	안 쓴다 — 「가」 처럼 셈이 갈리는 자리가 있다 ④-3

이 책의 단위는 마침표다. 마침표를 세면 글썽이가 어디서 끊기로

했는지가 보이고,

끊는 자리가 선택이기 때문이다. ⑥-4

그리고 문장 안을 볼 때 쓰는 자가 둘이다.

범론 § 24 주어-서술어 관계가 하나면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
네스필드 § 263 주된 생각이 하나면 한 문장 05장

둘이 대개 같은 답을 준다. 어긋나는 자리가 이 책이 다루는 자리다.

④-3

2 세 가지가 같은 수를 주는 때

The dog barked. The cat ran.

마침표·주어-서술어·일·셋이 다 둘이다.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문의 많은 문장이 이렇다.

3 어긋나는 자리 셋 ★

가 On the other side he looked down ... 범론 § 24 · ②-3
(전문은 ②-3)
... wild, lonely, and shagged, the bottom filled with fragments ...

나 The road was closed, so we took the long way round.

다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마침표	주어-서술어	일	이 책의 처리
가	1	1	여럿	한 문장. 나머지는 부속이다—범론 § 24
나	1	2	2	한 문장. 다만 안에 主從이 있다—04장
다	2	2	2	두 문장. 사이에 主從이 있다—04장

나와 다가 이 책의 물음이다. 같은 두 일을 한 문장으로도 두 문장으로도 쓴다.

그 선택이 무엇을 하는가. 02장 이 그 선택을 다루고 04장 이 판정한다.

4 그리고 「정형동사가 있어야 문장」 이 아니다

②-2 와 ②-4 가든 것들—속담과 아이 말—에는 정형동사가 없다. 그런데 두 부분이 있다.

Much cry		little wool	울음이 많다	— 그것에 관해	— 털은 적다
Papa		hat	아빠	— 그것에 관해	— 모자

두 부분이 있으면 문장이다. 그리고 두 부분을 잇는 것이 정형동사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다.

자리로 잇는 것이 먼저였다— 03장 .

이것이 이 책 전체의 씨앗이다. 문장 안에서 자리로 이었다면, 문장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다.

5 그러면 세는 것이 정해졌으므로

뒤의 열일곱 장이 문장을 단위로 센다.

02장	문장 여럿을 이으면 무엇이 되나	범론 § 26
03장	잇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어니언스 § 288 - § 291
04장	이었던 안 이었던 主從이 있다	어니언스 § 294
05장	한 문장에 주는 하나다	네스필드 § 263

⑤ 매핑 위의 자리

좌표: 메타 — 세는 단위

①권 매핑 한 문장에 한 벌

글: I gave Jiho the ticket.

Jiho | 실 | 받음

ticket | 실 | 건네짐 ◀ 이 「한 벌」의 근거가 여기 있다

I | 실 | 건넴

시간

범론 § 24 주어-서술어 관계가 하나 — 아무리 길어도 한 벌

네스필드 § 263 주된 생각이 하나 05장

①권이 「문장 하나에 매핑 한 벌」로 썼고 근거를 안 적었다. 이 장이 그 근거를 뒤늦게 댄다.

M19

그리고 여기서 배율이 바뀐다. 위 도해에서 줄 하나는 참여자다 —

①권의 매핑이다.

2부부터 줄 하나는 문장이다. 부호는 그대로 두고 세는 단위만 바꾼다.

①권의 눈으로 뒤의 도해를 읽으면 안 된다. 04장 ⑤ · 부록 A-3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1 첫 시간에 세는 법을 정한다

1걸음 "이거 몇 문장이야?"를 묻는다. 학생마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

2걸음 왜 다른지 보인다 — 마침표 · 주어-동사 · 일, 세 가지를 세고 있었다

3걸음 "우리는 마침표로 센다"를 정한다. 그리고 까닭을 준다

3걸음의 까닭이 중요하다. 「그냥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주어-서술어 관계가 하나면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이라고 1917년 책이 적어 뒀다」이다.

2 「길면 복문」 을 깨는 예문 하나

The letter, written in haste on the back of an envelope and never posted,
was found in his desk thirty years later.

스물두 낱말. 주어는 letter, 서술어는 was found. 단문이다.

학생에게 이 문장을 먼저 주고 「단문이야 복문이야?」를 묻는다.
거의 전원이 복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 24를 보인다.
한 번 겪으면 다시 안 틀린다.

3 정형동사 없는 문장 보이기

No pain, no gain.
Like father, like son.
Once bitten, twice shy.

셋다정형동사가 없다. 셋다문장이다.

「동사를 찾아라」로만 가르치면 이 셋을 못 읽는다.
두 부분을 찾으면 읽힌다 — 앞이 화제이고 뒤가 그에 관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 — 속담 인용, 표제, 광고 문구. 정형동사가 없는 자리다.

4 학생 질문 셋과 답변 문장

Q. 그럼 절을 세는 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세는 거다. 절을 세면 구조가 보이고,
마침표를 세면 글썽이가 어디서 끊기로 했는지가 보인다.
이 책은 뒤엣것을 본다 — 끊는 자리가 선택이니까.

Q. 동사 없어도 문장이면 아무 말이나 문장이예요?

아니다. 두 부분이 있어야 한다. No pain, no gain은

「고통 없음」을 화제로 놓고 「얻음 없음」을 그에 관해 말한다. **두**

부분이다.

beautiful house 는 한 부분이라 문장이 아니다.

Q. 긴 문장이 단문이면 왜 어려워요?

어려운 건 관계가 여럿이어서가 아니라 부속된 말이 많아서다.

부속을 건어내면 The letter was found. 네 낱말이다.

뼈대를 먼저 찾고 살을 붙이면 된다 — 그게 09장의 세로줄이다.

5 3분에 들어가나

문장 옮겨 적기	20초
주어·서술어 찾기	40초
부속 건어내기	30초
	1분 30초

⑦ 한 장 요약

문장을 무엇으로 세나

세는 법이 셋이었다

마침표를 센다 지면에 보이는 것
주어 - 동사를 센다 구조로 세는 것
일을 센다 뜻으로 세는 것 — 켜미 갈리는 자리가 있다

이 책은 마침표로 센다 — 끊는 자리가 글쓴이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문장 안을 볼 때 쓰는 자가 둘이다

원전 둘이 문장을 같은 두 부분으로 정의한다

범론 § 6 - § 7 화제로 삼는 부분 + 그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
어니언스 § 289 이름 짓는 부분 + 이름 지어진 것에 관해 말하는 부분

둘 다 그 정의에 "동사가 있어야 한다"를 안 건다
그 뒤가 갈린다 — 범론 § 28 은 생략으로, 어니언스 § 290 Obs.1 은 생략이 아니라고

단문이 반드시 짧은 문장은 아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하나뿐이어도
설명하는 말과 구를 많이 거느려 상당히 긴 문장이 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범론 § 24 · 원서 17쪽

오늘 교재는 "절의 수"로 센다 — 그 잣대도 긴 단문에 1 을 주는데
그 1 을 지면에 말해 주지 않는다

정형동사 없는 문장이 있다

Much cry little wool. No pain, no gain. Papa hat.

두 부분이 있으면 문장이다.
정형동사는 두 부분을 잇는 흔한 방법이지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자리로도 잇는다

문장 안에서 자리로 이었다면 문장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다.
— 이것이 이 책 전체의 씨앗이다. 03장으로 간다

주어는 주제를 지정한다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주제가 되는 것을 지정하는 말이다" 범론 § 27

①권이 축3을 "전달"이라 부른 그 자리가
1917년 문법서의 주어 정의 안에 이미 있었다

제 1 부 · 문장은 날개가 아니다

02

중문은 단문의 연속이다

좌표 구조 — 이어도 세는 수는 같다 · 인용 4개소 · 도해 4점 · 짜임 9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이거 두 문장으로 쓰면 안 돼요?"

영작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그리고 교사가 답하기 어렵다. 된다. 그런데 왜 되는지, 그리고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말해 주기 어렵다.

가 The road was closed, an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나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둘 다 맞는 문장이다. 교재는 가를 중문이라 부르고 나를 두 개의 단문이라 부른다. 갈래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것인가.

이 장이 답할 질문: 문장을 이으면 새것이 생기는가, 아니면 놓인 것이 그대로 있는가.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

前章説く所の如く英語の文には種々異なりたる組合せありて一樣ならずと雖も、其成立の根本は主語及び述語の關係であつて、其の最單純なるは單一文である。而して 合成文は單一文の連續に過ぎず、又重複文の主要文句は其形式に於て單一文と異ならざるを 原則とする。只從屬文句に於ては多少の變化なきにあらねど今日の英語に於ては其の根柢に 於て單一文と同様である。故に文の成立の根本形式を知らんとするには、先づ範圍を單一文に限りて之れを考查研究し然る後順次他に及ぶを以て便宜とする。

앞 장에서 설명했듯 영어 문장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결합이 있어 한결같지 않지만, 그 성립의 근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며 가장 단순한 것은 단문이다. 중문은 단문이 연속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복문의 주요절은 형식상 단문과 다르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다만 종속절에는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영어에서는 그 근본이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6

원서 19쪽

원문 일본어

단문과 같다. 그러므로 문장이 성립하는 기본 형식을 알려면 먼저 범위를 단문에 한정하여 고찰하고 연구한 뒤 차례로 다른 것에 미치는 편이 편리하다.

[강조는 인용자]

세 마디가 이어진다.

중문은 단문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이은 것은 새것이 아니다
복문의 주요절도 단문과 다르지 않다	종속시켜도 주절은 단문이다
종속절도 근본이 단문과 같다	근본에서는 같다 — 다소 변화는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문장이든 근본 형식으로는 단문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환원한 뒤에 세면 수가 같다.**

②-2 그리고 「편의를 위해」 이었다고 적는다 ★★

二箇以上の全く獨立したる單一文を何等かの便宜のために或種の關係語（主として對等接續詞）を以て連結したるに止まる文… 各其獨立の體面を失はざるを以て之を獨立文句（Independent Clause）と呼び、又は各對等の値を有するを以て對等文句（Co-ordinate Clause）とも稱へる。

둘 이상의 완전히 독립된 단문을 어떤 편의를 위해 일정한 관계어(주로 등위접속사)로 연결한 데 그치는 문장… 각각 독립된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이를 독립절(Independent Clause)이라 하고, 또는 각각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등위절(Co-ordinate Clause)이라고도 한다.

「독립된 지위를 잃지 않는다」가 결정적이다. 이어 놓아도 각각이 여전히 단문이고, 이름만 「절」로 바뀐다.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5

원서 17-18쪽

인용 중보 — 앞대목은 01장 ③-2

뒷대목은 여기가 전문

원문 일본어

②-3 어니언스도 같은 것을 적는다 — 다만 내력으로

We have seen how the simple sentence arose by placing together two elements (words or groups of words) to express the connexion between two ideas in the mind of the speaker. **The history of the complex sentence is exactly similar; it originated in the placing side by side of two simple sentences in some kind of logical order without any sort of connecting link.**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1

원서 154쪽

원문 영어

단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앞에서 보았다 — 말하는 이의 마음속 두 생각의 연결을 나타내려고 두 요소(낱말 또는 낱말 무리)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복합문의 내력도 꼭 같다. 그것은 두 단문을 어떤 논리적 순서로 나란히 놓은 데서 비롯되었다 — 어떤 종류의 잇는 고리도 없이.**

	무엇을 말하나	성격
범론 § 26	지금 중문은 단문의 연속이다	구조
어니언스 § 291	본래 복합문은 단문을 나란히 놓은 데서 왔다	내력

복합문 (complex sentence)은 범론의 복문 (重複文)보다 넓다.

어니언스는 그것을

문장 발달의 내력으로 쓰고 범론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겹치는가**로 정의한다 (§24).

한 글자 차이로 갈라 쓴다. 부록 A-5

같은 사실을 공시와 통시로 적었다. 그리고 우리가 견준

자리들에서는 서로를 인용하지 않는다. 설계 § 0 · 확정서술 C4

③권이 셋을 나란히 놓는 것이 처음이다 — 설계 § 1.

②-4 그러면 세 갈래가 한 줄이 된다

01장 ③-2 가 세운 갈래 넷을 § 26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된다.

단문	주어-서술어 관계 하나	
중문	그것이 여럿. 편의로 이었다	— 연속
복문	그것이 여럿. 하나를 다른 하나 아래 두었다	— 주요절은 단문
혼합문	둘이 섞였다	

넷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것을 다르게 놓은 것이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1 원전 — 환원해 놓고 시작한다

호소에는 § 26을 제2장의 첫 절로 두었다. 곧 문장의 기본 형식을 논하기 전에 「다 단문으로 환원된다」를 먼저 못 박는다. 환원이 방법이지 결론이 아니다.

2 네스필드가 그 환원 위에서 규칙을 세운다

If several leading thoughts are thrown together, the sentence containing them should be distributed into as many separate sentences as there are leading thoughts.

주된 생각 여럿이 한데 던져져 있으면, 그것을 담은 문장은 주된 생각의 수만큼 별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야 한다. 전문과 번역은 05장 ②-1

범론이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네스필드가 「그러니 나누라」고 한다.

범론 § 26

이어도 연속일 뿐이다 — 사실

네스필드 § 263

그러니 짐이 둘이면 나눠라 — 규칙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263

원서 146쪽

인용 증복

원문 영어

뒤엿것이 앞엿것 위에서만 성립한다. 연속이 아니라 새것이라면 나눌 수 없다.

두 저자가 서로를 모른 채 앞뒤를 이룬다. 05장

3 오늘의 학교문법 — 갈래가 종류가 되었다

오늘 교재에서 이 자리는 이렇게 나온다.

재구성

등위접속사로 이어진 것이 **중문**, 종속절을 포함한 것이 **복문**이다. 각각의 쓰임을 익혀 두자.

갈래가 왔고 환원이 안 왔다. M7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연 교재에서는.

확정서술 C1

범론 1917

오늘 재구성

갈래는 무엇인가	하나를 다르게 놓은 것	문장의 종류
중문의 성격	편의로 이은 연속	등위접속사가 있는 문장
이으면 달라지나	안 달라진다 — 독립을 잃지 않는다	안 묻는다

잘린 것은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줄이다.

그 줄이 없으면 갈래가 서랍이 되고, 학생은 어느 서랍인지 고르는

연습을 한다.

그런데 이 책이 물어야 하는 것은 「왜 그 서랍을 골랐나」다.

①권 05장이 같은 자리를 다뤘다 — ①권 05장 ④-1, 분석 도구가 판정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갈래는 분석 도구였는데 판정 대상이 되었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1 이어나 안 이어나 수가 같다

가	The road was closed, and we took the long way round.	1 문장 · 관계 2
나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2 문장 · 관계 2

관계의 수가 둘로 같다. 01장 ②-3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2 다른 것은 둘이다 — 묶었는가·이었는가

두 자리가 함께 바뀐다. 마침표 하나로 묶었고, 그러면서 and 로 이었다. 먼저 묶음을 보고(여기) 다음에 잇는 말을 본다(④-4).

가	한 마침표 안에 둘을 넣었다	"이 둘은 한 덩이다"
나	마침표로 갈랐다	"이 둘은 각각이다"

가는 「한 집」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나는 「두 집」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표시가 05장 의 규칙에 걸린다 — 한 문장에 주된 생각은 하나다.

가가 맞으려면 두 일이 하나의 주된 생각에 이바지해야 한다.

3 그래서 ①의 질문에 답이 나온다

「두 문장으로 쓰면 안 돼요?」 — 된다. 다만 무엇을 표시하느냐가 달라진다.

짐이 하나면 이어 쓴다. 둘이 한 생각에 이바지한다는 표시

짐이 둘이면 나눠 쓴다. 그리고 사이의 主從은 04장이 판정한다

교사가 줄 답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집의 수**다.

05장

4 그리고 잇는 말은 필수가 아니다 ★★

§ 25가 「편의를 위해」라고 적었다. 편의라면 안 써도 된다는 뜻이다.

The road was closed, and we took the long way round.

이었다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안 이었다

안 이어도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04장 § 294가 「반드시 종속된다」고 적은 자리로 곧장 간다.

그리고 12장 § 292가 「특정할 뿐이다」로 닫는다.

1부의 세 장이 그 결론을 향해 놓인다.

5 환원을 읽기에 쓰면

긴 문장을 만나면 단문으로 되돌린다.

Although the technology had been available for a decade, no manufacturer was willing to commit, and several prototypes were quietly abandoned.

- ▶ The technology had been available for a decade.
No manufacturer was willing to commit.
Several prototypes were quietly abandoned.

→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셋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되돌린 뒤에 04장 의 관정을 돌린다 — 어느 것이 주(주)인가.

이것이 이 책의 읽기 절차 첫 걸음이다. 16장

한 문장 안에서도 主從(주종)이 있다 — 범론이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고 했으므로.

⑤ 매핑 위의 자리

좌표: 구조 — 이어도 세는 수는 같다

이었을 때

안 이었을 때



한 마침표

두 마침표

관계 2

관계 2 — 수가 같다

다른 것은 둘이다 — "한 짐이라고 표시했는가" · "관계를 못 박았는가"

부호를 더하지 않는다. ①권의 매핑 한 별이 관계 하나에 붙는다는 것만 확인한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1 판서 — 되돌리기

- 1걸음 긴 문장을 옮겨 적는다
- 2걸음 주어 - 서술어 쌍마다 밑줄을 긋는다. 몇 쌍인지 센다
- 3걸음 쌍마다 한 줄씩 다시 적는다 — 단문으로 되돌린다
- 4걸음 되돌린 줄들 사이에 04장의 굵은 선을 긋는다

3걸음이 이장의 방법이다. 그리고 4걸음이 다음부로 넘긴다.

2 영작에서 — 「몇 집이야?」

학생이 「두 문장으로 쓰면 안 되냐」고 물으면 되묻는다.

「하러던 말이 하나야 돌아야?」

하나면 이어 쓴다. and · but · so 로 묶어도 되고 종속시켜도 된다
둘이면 나눠 쓴다. 나눈 뒤에 순서를 정한다 — 08장

「길어서 나눈다」가 아니다.

05장 ④-3

3 갈래 이름을 시험용으로만 남긴다

중문·복문 이름은 시험에 나오므로 안 버린다. 다만 자리를 낮춘다.

「중문·복문은 어떻게 놓았는지를 부르는 이름이지 다른 종류의 문장이 아니다.
다 단문의 연속이다.」

이 한 줄을 갈래를 가르치는 날 함께 준다. 그러면 서랍 고르기가 표시 읽기가 된다.

4 학생 질문 셋과 답변 문장

Q. 그럼 중문이랑 두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는 수는 같고 표시가 다르다.

이어 쓰면 「이 둘이 한 덩이야」 라고 표시한 거고, 나눠 쓰면

「각각이야」 라고 표시한 거다.

표시가 다르면 읽는 사람이 다르게 읽는다.

Q. 그럼 아무렇게나 이어도 돼요?

안 된다. 이어 쓰려면 두 일이 한 생각에 이바지해야 한다.

「기차가 늦었다 **그리고** 우산을 잊었다」 는 두 짐이라 이으면

어색하다. 05장

Q. 복문은요? 복문도 단문의 연속이에요?

주요절은 단문과 다르지 않고, 종속절도 근본이 단문과 같다고

1917년 책이 적었다.

다만 중문은 나란히 놓은 거고 복문은 하나를 다른 하나 아래 둔 것
이다.

아래에 둔다는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 그 차이이다.

5 3분에 들어가나

문장 옮겨 적기	20초
쌍 세기	30초
되돌려 적기	40초
	1분 30초

⑦ 한 장 요약

중문은 단문의 연속이다

원전이 적은 것

그 성립의 근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며 가장 단순한 것은 단문이다.
중문은 단문이 연속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복문의 주요절은 형식상 단문과 다르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범론 § 26 · 원서 19쪽

그러므로 어떤 문장이든 근본 형식으로는 단문으로 환원된다

편의를 위해이었을 뿐이다

둘 이상의 완전히 독립된 단문을 어떤 편의를 위해
관계어로 연결한 데 그치는 문장 ——
각각 독립된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독립절이라 한다. § 25

편의라면 안 써도 된다. 그것이 04장으로 간다

어니언스는 같은 것을 내력으로 적는다

범론 § 26 지금 중문은 단문의 연속이다 구조
어니언스 § 291 본래 복합문은 나란히 놓은 데서 왔다 내력

이으나 안 이으나 수가 같다

The road was closed, and we took the long way round. 1 문장 · 관계 2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2 문장 · 관계 2

다른 것은 둘이다 —— "한 짐이라고 표시했는가" · "관계를 못 박았는가" ④-2 · ④-4

"두 문장으로 쓰면 안 돼요?"

된다. 다만 무엇을 표시하느냐가 달라진다.
짐이 하나면 이어 쓰고 둘이면 나눠 쓴다.
"길어서 나눈다"가 아니다

오늘 교재에서 갈래가 종류가 되었다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한 줄이 안 왔다.
그 줄이 없으면 갈래가 서랍이 되고
학생은 어느 서랍인지 고르는 연습을 한다

제 1 부 · 문장은 날개가 아니다

03

잇는 말 없이 나란히 놓기가 먼저였다

좌표 내력 — 잇는 말은 나중에 왔다 · 인용 7개소 · 도해 4점 · 짜임 11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접속사부터 배우고 나서 긴 문장 배우는 거죠?"

교재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단문을 배우고, 접속사를 배우고, 그 접속사로 긴 문장을 만든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인다.

그런데 언어가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

교재의 순서 단문 ▶ 접속사 ▶ 복합문
실제 순서 단문 ▶ 나란히 놓기 ▶ 접속사

→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나란히 놓기가 먼저다. 그리고 접속사는 나란히 놓인 것을 뒤에 표시한 것이다.

이 장이 답할 질문: 문장과 문장은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 **처음에**.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두 이름과 그 뜻 ★

PARATAXIS AND HYPOTAXIS. These are two Greek words meaning 'arrangement alongside' and 'arrangement under' (*para* by the side of, *hypo* under, *taxis* arrangement: cf. *syntax*). They are, therefore, roughly equivalent to the Latin words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but, in dealing with the history of sentence development, **they are used in a wider sense than the Latin words**, as will be shown in what follows.

병렬과 아래에 놓기(PARATAXIS AND HYPOTAXIS). 이들은 '나란히 놓기'와 '아래에 놓기'를 뜻하는 두 그리스말이다 (*para* 곁에, *hypo* 아래, *taxis* 배열 — *syntax*와 비교하라). 그러므로 이 둘은 라틴어의 등위(Co-ordination)·종속(Sub-ordination)과 대략 같으나, **문장 발달의 역사를 다룰 때에는 라틴어 낱말보다 넓은 뜻으로 쓴다** — 뒤에서 보이겠다.

[강조는 인용자]

이름 자체가 그림이다 — 나란히 놓기와 아래에 놓기. 자리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이 장의 문이다 — 등위·종속보다 넓게 쓴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88

원서 153쪽

원문 영어

그래서 이 책은 이름을 갈라 쓴다. parataxis 는 병렬, hypotaxis 는 아래에 놓기(자리),

Sub-ordination 은 종속(라틴 문법의 갈래)이다. 둘을 다

「종속」이라 옮기면

「넓다」는 단서가 안 보인다. 부록 A-5

다만 § 294의 virtual hypotaxis 만 「실질상의 종속」으로 굳혀 적는다 — 04장 의 제목이 그것이다.

②-2 가장 이른 단계 ★★★

In the earliest stages of language the connexion of two ideas which i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sentence, seems to have been first expressed by placing the words or sets of words denoting these ideas side by side, without the aid of a connecting link of any kind.

언어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는, 문장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두 생각의 연결이, 그 생각을 나타내는 낱말이나 낱말 무리를 나란히 놓는 것으로 처음 표현된 듯하다 — 어떤 종류의 잇는 고리의 도움도 없이.

「연결이 먼저 있었고 잇는 말이 없었다」가 이 절이다. 연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표시가 없었던 것이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89

원서 153쪽

원문 영어

04장 ④-1

②-3 그리고 그 꼴이 지금도 남아 있다 ★★

'Much cry little wool', 'Like master like man', 'Borrow sorrow', 'One man one vote'. These are quite as much sentences as 'The man lives alone', 'Queen Anne is dead'. ... Many sentences of this kind are of a proverbial nature, and as such have come down to us in a fossilised form, but the power to frame such sentences still continues in the language; for example, 'One man one vote' (mentioned above), 'Every man his own lawyer', 'No sacrifice, no priest.'

... 이런 종류의 문장은 대개 속담의 성질을 띠며, 그래서 화석이 된 꼴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앞 두 줄의 번역은 01장 ②-2 그러나 그런 문장을 지어내는 힘은 이 언어에 여전히 남아 있다 — 이를테면 「한 사람 한 표」, 「누구나 제 변호사」, 「희생이 없으면 사제도 없다」.

「화석」과 「여전히 남아 있다」가 한 문장에 있다. 옛 꼴이 되 죽은 것이 아니다 — 오늘도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셋째 자리를 든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89

원서 153-154쪽

인용 중복

원문 영어

The form is frequent in **exclamations and exclamatory questions**... 'He a coward?' 'Harry dead?' 'Jones a professor!' The same principle is seen at work in **children's attempts to express thought in sentence-form**; e.g. a child may say 'Papa hat' ...

이 꼴은 **감탄과 감탄 의문**에 흔하다 — 「He a coward?」 「Harry dead?」 「Jones a professor!」 같은 원리가 **아이가 생각을 문장꼴로 나타내려는 시도**에서도 보인다 — 아이는 「Papa hat」 이라 말하기도 한다. 전문과 번역은 01장 ②-4

속담	화석으로 전해지고	Much cry little wool
	오늘도 지어진다	No sacrifice, no priest
감탄	말 그 자리에서	He a coward?
아이 말	처음 배우는 자리에서	Papa hat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0

원서 154쪽

인용 중복

원문 영어

셋이 한 원리의 세 모습이다. 그리고 셋째가 결정적이다
— **아이는 옛말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다.**

②-4 복합문도 같은 내력이다

The history of the complex sentence is exactly similar; it originated in the placing side by side of two simple sentences in some kind of logical order without any sort of connecting link.

He laughed. She cried. I was invited. I went.

The battle was over. We found him dead. I came. I saw. I conquered.

In each of these cases we have two or more statements placed side by side as independent sentences expressing ideas of **equal importance**. This is called **parataxis or paratactic construction**.

복합문의 내력도 꼭 같다. 그것은 두 단문을 어떤 논리적 순서로 나란히 놓은 데서 비롯되었다 — 어떤 종류의 잇는 고리도 없이. ... 이 각각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진술이 똑같은 무게의 생각을 나타내는 독립된 문장으로 나란히 놓인다. 이것을 병렬 또는 병렬 구성이라 한다. 앞 대목(원서 154쪽)의 전문과 번역은 02장 ②-3 ·

뒤 대목(155쪽)은 여기가 전문이다

단문이 생긴 방식과 복합문이 생긴 방식이 같다.

단문	날말 둘을 나란히	Much cry little wool
복합문	단문 둘을 나란히	The battle was over. We found him dead.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1

원서 154-155쪽

인용 중복

원문 영어

배율만 다르고 방법이 같다. 이 책 전체가 그 관찰 위에 선다.

설계 § 0

그리고 「어떤 논리적 순서로(in some kind of logical order)」가 적혀 있다

— 순서가 아무렇게나가 아니었다. 04장

②-5 범론이 같은 자리를 구조로 적는다

合成文は單一文の連續に過ぎず

중문은 단문이 연속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니언스는 「그렇게 생겨났다」로, 호소에는 「지금도 그렇다」로 적는다.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6

원서 19쪽

인용 중보

원문 일본어

02장 ②-3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1 원전 — 역사를 먼저 놓는다

어니언스는 접속사 장(§ 285-§ 287) 다음에 이 구간을 두고, 접속사를 배운 뒤에 「그런데 접속사 없이도 이어졌다」를 적는다. 순서가 뒤집기다.

2 범론 — 어순을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다」고 적는다

… 文中に在りて語と語との關係を示すものは實に之れのみではない。語の配置如何は時に嚴として其の關係を決定するものである。… 兎に角語と語との關係を示す屈折なく、前置詞等の關係語を用ひざる場合に於ては、語の配置如何がその關係を定むるもので英語に於ては此事が極めて有力重要なものである。

… 문장 안에서 말과 말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실로 이것(관계어와 굴절)뿐이 아니다. 말의 배치가 때로 엄하게 그 관계를 정한다. … 어쨌든 말과 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굴절이 없고 전치사 같은 관계어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말의 배열 방식이 그 관계를 정한다. 영어에서는 이것이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다.

호소에는 이것을 낱말 층위에서 적었다. 굴절도 없고 관계어도 없으면 자리가 관계를 정한다.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17

원서 8-10쪽

원문 일본어

	어느 배울에서	무엇이 있나
범론 § 17	날말 사이	배열 방식
어니언스 § 289	날말 사이	나란히 놓기
어니언스 § 291	문장 사이	나란히 놓기

호소에는 날말까지 갔고 어니언스는 문장까지 갔다.

①권이 § 17을 어순 장의 근거로 썼다 — ①권 09장 ②-2.

③권이 그 위 배울을 잇는다.

3 오늘의 학교문법 — 순서가 뒤집혀 있다

오늘 교재에서 이 자리는 이렇게 나온다.

재구성

두 문장을 이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등위접속사는 대등하게,
종속접속사는 주절에 딸리게 잇는다.

「필요하다」가 왔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온 것이라는 사실이 안 왔다.

M7
확정서술 C1

어니언스 1903

오늘

재구성

무엇이 먼저인가	나란히 놓기	접속사
접속사가 하는 일	등위로 이으면 이미 있는 관계를 또렷하게 한다. 종속으로 묶으면 한쪽을 다른 쪽 아래로 내려놓는다. § 292, 04장 ⑥-3	관계를 만든다
접속사가 없으면	그래도 이어져 있다 — § 294	못 잇는다

잘린 것은 순서다. 그리고 순서가 뒤집히면 인과도 뒤집힌다

— 표시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되고, 표시가 없으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학생이 「and도 because도 없는데 왜 이유예요?» 라고

묻는다. 04장 ①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1 세 가지 잇는 법

두 생각을 잇는 방법이 셋이고, 온순서가 있다.

- | | | |
|-------------|-----------------------|-----------------|
| 1 자리로 잇는다 | 나란히 놓는다 | 가장 오래됨 · 지금도 쓴다 |
| 2 지시어로 잇는다 | 한쪽에 that · then 을 놓는다 | 13장 |
| 3 잇는 말로 잇는다 | 접속사가 관계를 특정한다 | 12장 |

셋 다 지금 살아 있다. 나중 것이 앞 것을 밀어내지 않았다.

1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2와 3이 더해진 것이다.

2 자리로 잇는 것을 오늘 문장에서 본다

- 가 Easy come, easy go.
 나 First come, first served.
 다 No pain, no gain.
 라 Out of sight, out of mind.

넷다 잇는 말이 없고 넷다 이어져 있다. The more you practise, the better you get. 은 여기 안 든다 — **the ... the** 가 잇는 말이다 (어니언스 §284 가 그 the 를 관계·지시의 힘으로 적는다). 그것은 13장 의 자리다. 그리고 넷다 오늘 쓰인다 — §289의 「지어내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가 이것이다.

3 아이의 말이 왜 중요한가 ★★

§290의 셋째 예가 이장에서 가장 센 대목이다.

Papa hat. — 아빠가 모자를 쓰고 있다 · 아빠에게 모자를 줘 · 여기 아빠 모자 있어

아이의 속담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같은 꼴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나란히 놓기」는 물려받은 옛 꼴이 아니라 언어가 늘
다시 하는 일이다.
화석과 살아 있는 힘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도 그렇다. 「비 오면 못 가」에는 「~때문에」가 없다.

4 그러면 교재의 순서를 뒤집는다

교재의 순서

이 책의 순서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 연습

이어진 것을 먼저 보고 표시를 나중에

「접속사가 없으면 못 잇는다」

「표시가 없어도 이어진다」

뒤집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순서가 맞아야 04장의 판정이 성립한다
— 잇는 말이 없는 문장 쌍에서 主從(주종)을 판정하려면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

5 그리고 「넓은 뜻으로 쓴다」가 여기서 값을 낸다

§ 288이 등위·종속보다 넓게 쓴다고 단서를 달았다. ②-1 무엇이 넓은가.

등위 · 종속 잇는 말이 있느냐로 가른다

형태

병렬 · 아래에 놓기 무엇이 무엇에 매달리느냐

형태 + 생각 ②-1

넓은 만큼이 「생각의 층」이다. 그리고 그 층을 § 294가 연다.

04장

이 책의 2부가 거기서 시작한다.

⑤ 매핑 위의 자리

좌표: 내력 — 잇는 말은 나중에 왔다

날말 사이

Much cry | little wool

▲
자리

§ 289 · 범론 § 17

문장 사이

The battle was over. | We found him dead.

▲
자리

§ 291

같은 방법, 다른 배울 — 이 책 전체가 이 관찰 위에 선다

부호를 더하지 않는다. ①권의 매핑이 문장 안에서 한 것을 한 배울 위로 올린다는 이 책의 설계가 여기서 근거를 얻는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1 접속사 단원을 여는 한 문장

접속사를 가르치는 날 이렇게 연다.

「접속사는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다. 등위로 이르면 이미 있는
관계에 이름을 붙이는 거고,
종속으로 묶으면 한쪽을 다른 쪽 아래로 내려놓는 거다.」 §292

그리고 속담 넷을 보인다. ④-2 잇는 말 없이 이어진 실물을 먼저 겪으면 접속사가
선택으로 보인다.

2 판서 — 표시를 지워 본다

- 1걸음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적는다
- 2걸음 접속사를 지운다. 마침표로 나눈다
- 3걸음 "그래도 관계가 보이냐?" 를 묻는다
- 4걸음 보이고 방향도 하나면 관계는 원래 있던 것이다
보이는데 방향이 흔들리면 그 접속사가 방향을 특정한 것이다 12장
아주 안 보이면 그 접속사 말고는 지면에 표시가 없던 것이다
—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04장

4걸음이 이 장의 판정이다. 그리고 관계는 보이는데 방향이 안 정해지는 자리가 있다

— 그것이 12장 §292가 「특정한다」 고 적은 자리다.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보인다
She left early. The train was delayed. 보이는데 방향이 흔들린다

3 우리말과 견주기

우리말도 있는 말 없이 잇는다. 그것을 먼저 보이면 영어가 낫설지 않다.

비 오면 못 가. — "~ 때문에" 가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조건과 결과가 자리로만 있다
싼 게 비지떡. — 두 부분이 나란히

학생 자신이 매일 쓰는 풀이다. 그리고 영어의 속담이 같은 풀이다.
낮선 규칙이 아니라 이미 하는 일임을 보이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4 시험에서 — 문장 삽입과 순서

있는 말이 없는 자리가 시험의 어려운 자리다.

연결어가 있으면 연결어를 따라간다. 쉽다
연결어가 없으면 자리와 지시어로 판정한다. 어렵다

그래서 연결어가 없는 자리에서 갈린다.

그 자리에 쓸 도구가 04장 의 主(주)從(종)이고, 그 근거가 이 장의 내력이다.

5 학생 질문 셋과 답변 문장

Q. 그럼 접속사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다만 다른 걸 표시한다.

쓰면 「이 관계다」 라고 못 박는 거고, 안 쓰면 읽는 사람이 세운다.

못 박으면 분명하고, 안 박으면 두 문장이 각각 주장으로 남는다.

04장

Q. 옛날 영어 얘기가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다. No pain, no gain은 지금 쓰는 말이고,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도 그 꼴로 시작한다.

화석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꼴이다 — 어니언스가 그렇게 적었다.

Q. 그럼 등위·종속은 안 배워도 돼요?

배운다.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같이 안다.

등위·종속은 잇는 말이 있느냐로 가르는 이름이고,

어니언스는 그보다 넓은 뜻으로 쓴다고 적어 뒀다. 넓은 만큼이 다음 부에서 나온다.

6 3분에 들어가나

문장 적기	20초
접속사 지우기	10초
나뉘어 적기	30초
관계 보이나 묻기	30초
	1분 30초

⑦ 한 장 요약

있는 말 없이 나란히 놓기가 먼저였다

원전이 적은 것

언어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는, 문장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두 생각의 연결이, 그 생각을 나타내는 낱말이나 낱말 무리를
나란히 놓는 것으로 처음 표현된 듯하다 ——
어떤 종류의 있는 고리의 도움도 없이.

어니언스 § 289 · 원서 153쪽

연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표시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남아 있고 지금도 만들어진다

속담	화석으로 전해지고 오늘도 지어진다	Much cry little wool · No sacrifice, no priest
감탄	말 그 자리에서	He a coward?
아이 말	처음 배우는 자리에서	Papa hat

"그런 문장을 지어내는 힘은 이 언어에 여전히 남아 있다" § 289

아이는 속담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같은 꼴로 시작한다

같은 방법, 다른 배울

낱말 둘을 나란히	Much cry little wool
단문 둘을 나란히	The battle was over. We found him dead.

이 책 전체가 이 관찰 위에 선다

교재의 순서가 뒤집혀 있다

교재	단문 ▶ 접속사 ▶ 복합문
실제	단문 ▶ 나란히 놓기 ▶ 접속사

순서가 뒤집히면 인과도 뒤집힌다 ——

표시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되고, 표시가 없으면 없는 것이 된다

두 이름은 등위 · 종속보다 넓다

등위 · 종속	있는 말이 있느냐	형태
병렬 · 아래에 놓기	무엇이 무엇에 매달리느냐	형태 + 생각

넓은 만큼이 "생각의 층"이고, 그 층을 04장이 연다

제 2 부 · 하나가 主 고 하나가 從 이 다

04

병렬에도 실질적 종속이 있다

좌표 축3 — 문장 사이의 主從(주종) · 인용 6개소 · 도해 4점 · 짜임 7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여기 and 도 없고 because 도 없는데
왜 이 문장이 앞 문장의 이유예요?"

지문을 읽다가 나오는 질문이다. 그리고 **교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문장 둘이 나란히 있다.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학생에게 물으면 대개 「**길이 막혀서 돌아갔다**」로 읽는다. 맞게 읽었다. 그런데
「**막혀서**」에 해당하는 낱말이 문장 안에 없다.

교사가 할 수 있는 답은 보통 둘이다.

답	문제
하나 「문맥으로 아는 거야」	답이 아니다. 문맥이 무엇인지를 묻은 것이다
둘 「원래 because가 생략된 거야」	사실이 아니다. 생략이라면 넣을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넣으면 뜻이 달라진다

Because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는 **같은 문장이 아니다**. 앞의 것은 두 사실을 나란히 놓았고, 뒤의 것은 하나를 다른 하나에 묶었다.

이 장이 답할 질문: 잇는 말이 없는데 관계가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그 관계는 정해져 있는가, 읽는 사람이 만드는가.**

미리 말해 두면 — 정해져 있다. 그리고 1903년에 그렇게 적혀 있다.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두 이름 — 그리고 라틴어보다 넓게 쓴다는 단서 ★

03장 ②-1 이 연 절을 여기서 다시 든다. 이장이 그 「넓은 만큼」을 채우기 때문이다.

They are, therefore, roughly equivalent to the Latin words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but, **in dealing with the history of sentence development, they are used in a wider sense than the Latin words.**

이 둘은 라틴어의 등위·종속과 대략 같으나, 문장 발달의 역사를 다룰 때에는 라틴어 낱말보다 넓은 뜻으로 쓴다. 전문과 번역은 03장 ②-1

[강조는 인용자]

마지막 단서가 이장의 문이다. 등위·종속은 있는 말로 가르치는 이름이고, 그가 쓰려는 병렬 아래에 놓기는 그보다 넓다. 무엇이 넓은지를 § 294가 적는다.

②-2 복합문은 나란히 놓기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적는다.

We have seen how the simple sentence arose by placing together two elements (words or groups of words) to express the connexion between two ideas in the mind of the speaker. **The history of the complex sentence is exactly similar; it originated in the placing side by side of two simple sentences in some kind of logical order without any sort of connecting link.**

단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앞에서 보았다 — 말하는 이의 마음속 두 생각의 연결을 나타내려고 두 요소(낱말 또는 낱말 무리)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복합문의 내력도 꼭 같다. 그것은 두 단문을 어떤 논리적 순서로 나란히 놓은 데서 비롯되었다 — 어떤 종류의 있는 고리도 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준다.

In each of these cases we have two or more statements placed side by side as independent sentences expressing ideas of equal importance. **This is called parataxis or paratactic construction.**

이 각각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진술이 똑같은 무게의 생각을 나타내는 독립된 문장으로 나란히 놓인다. 이것을 병렬 또는 병렬 구성이라 한다. 전문과 번역은 03장 ②-4

「똑같은 무게(equal importance)」를 적어 두었다. 그것이 형태의 층이다. 그리고 § 294가 그 층 아래를 연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88

원서 153쪽

인용 중복

원문 영어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1

원서 154쪽

인용 중복

원문 영어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1

원서 155쪽

인용 중복

원문 영어

순서가 뒤집혀 있다. 교실에서는 복합문이 단문의 발전형이지만, 여기서는 **나란히** 놓기가 먼저이고 묶기가 나중이다. 03장 이 그 내력을 다룬다.

②-3 그리고 이 장의 문장 ★★★

It is to be observed that, **when two sentences are placed side by side in parataxis, one of them must necessarily be subordinated in thought to the other.** Therefore, **in every instance of parataxis there is virtual, though not formal, hypotaxis.**

Thus, a sentence of command, question, wish, or concession may be equivalent to a subordinative clause of condition, etc. (cf. § § 43 Obs., 57b):

Go and see for yourself. You will find that I am right. [=If you go and see for yourself ...]

Do you think so? Then act accordingly. [=If you think so ...]

Compare the proverbs:—

Fast find, fast bind = when you have found something, make sure your possession of it;

Waste not, want not = if you waste not, you shall not want.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두 문장이 병렬로 나란히 놓일 때,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생각에서 다른 하나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병렬의 모든 사례에는, 형식상은 아니나 실질상의 종속이 있다. 그리하여 명령·의문·소망·양보의 문장이 조건 등을 나타내는 종속절과 맞먹을 수 있다 (§ § 43 Obs., 57b 와 견주라 — 그가 § 294 앞에서 이미 날개로 적어 둔 자리다). 속담과 견주라 —

Fast find, fast bind = 무언가를 찾았거든 그것을 확실히 제 것으로 해 두라

Waste not, want not = 낭비하지 않으면 아쉬울 일도 없다

세 낱말이 이 장의 전부다.

must necessarily	반드시	— 선택이 아니다
in thought	생각에서	— 형태가 아니라
virtual, not formal	실질상, 형식상 아님	— 두 층이 따로 논다

②-4 그가 든 두 예가 무엇을 보이나

첫째는 명령문 + 평서문이고 둘째는 의문문 + 명령문이다. 갈래가 달라도 둘 다 조건으로 읽힌다. 그래서 § 294 가 명령·의문·소망·양보 넷을 든 것이다 — 갈래가 아니라 조건으로 읽히는 것이 요점이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294

원서 156쪽

원문 영어

원문

어니언스가 괄호에 적은 것

Go and see for yourself. + You will find that I am right.

[= If you go and see ...]

Do you think so? + Then act accordingly.

[= If you think so ...]

괄호가 중요하다. 그는 「이렇게 바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그 뜻이다」로 적었다. 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관계가 읽힌다는 것이 논점이다.

그리고 둘째 예에는 Then이 있다.

잇는 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확정하지 않는 말이 있다.

Then은 순서를 표시하지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다. 조건은 어디서 오는가.

§ 294가 「생각에서」라고 답한다. 12장 이 이 자리를 다시 연다.

②-5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적는다

이 절들이 끝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달는다.

Note.—The above is not intended to be an exhaustive account of sentence-development in the English language. A few broad principles only have been enunciated, **which, although they cover considerable ground**, will not explain every kind of clausal combination which can be met with.

주. — 위의 것은 영어라는 언어에서 문장이 발달한 바를 남김없이 다룬 것이 아니다. 몇몇 넓은 원리를 세웠을 뿐이며, 그 원리는 상당한 범위를 포괄하기는 하나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절 결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가운데 절을 빼면 안 된다. 「상당한 범위를 포괄하기는 하나」가 없으면 이 주가 원리를 무르는 말로 읽힌다. 그는 범위를 밝힌 것이지 무른 것이 아니다.

§ 294도 그 안에 든다. 다만 § 300이 무르는 것은 「어떤 절 결합을 설명하는가」다. 그 주가 가리키는 「위의 것」은 § 288–§ 299의 문장 발달 서술이다 — 「모든 종류의 절 결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 294는 **in every instance of parataxis**라 적어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 책도 같은 자리에 선다. 그의 「반드시」를 그대로 받고, 우리 손에서 안정해지는 쌍이 몇 인지를 16장이 실제 지문에서 센다.

조건 하나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300

원서 158쪽

원문 영어

③ 무엇이 잘리고 무엇이 봉인되었나

1 원전 — 두 층을 나눠 놓았다

어니언스는 형태의 층과 생각의 층을 각각 이름 붙이고, 둘이 어긋날 수 있다고 적었다.

형태의 층 등위 / 종속 있는 말이 있는가 라틴 갈래 — 03장 ②-1
생각의 층 主 / 從 무엇이 무엇에 매달리는가

§ 294 는 이 둘을 갈라 놓는다 — 형태가 등위여도 생각에서는 하나가 從이다
그것이 「실질상의 종속」이다 — 이름은 같으나 재는 층이 다르다

2 범론 — 같은 것을 구조로 적는다

호소에는 문장의 종류를 다루면서 이렇게 쓴다.

合成文は單一文の連續に過ぎず

중문은 단문이 연속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과 번역은 02장 ②-1

어니언스가 「나란히 놓기에서 자랐다」 고 적은 것을 호소에는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로 적는다. 앞의 것은 내력이고 뒤의 것은 구조다.

細江逸記

英文法汎論

§ 26

원서 19쪽

인용 중보

원문 일본어

02장

우리가 견준 자리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인용하지 않는다.

호소에의 參考書類(참고서류)에 Onions 1911이 있으나

이 대목에서 그를 들지 않는다. ①권 04장 ②-4

논증은 일치이지 「누가 먼저」 가 아니다. 설계 § 0

3 오늘의 학교문법 — 형태의 층만 남았다

오늘 교재에서 이 자리는 이렇게 나온다.

재구성

등위절은 and·but·or로 대등하게 이어진 절이고,

종속절은 because·when·if 등으로 주절에 딸린 절이다.

두 이름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가르는 기준이 있는 말 하나로 줄었다.

M7

확정서술 C1

가르는 기준	형태는 있는 말, 생각은 따로 켤다	있는 말
있는 말이 없으면	§ 294 — 그래도 종속이 있다	다루지 않는다
두 층이 어긋날 때	「virtual, though not formal」	(자리가 없다)

잘린 것은 「생각의 층」이다.

이름 둘은 그대로 왔는데 **둘을 가르는 두 번째** 자가 안 왔다.

그래서 있는 말이 없는 문장 쌍은 문법의 관할 밖으로 나갔다 — 독해
시간으로.

①권 13장이 진단한 그 이사가 여기서도 일어난다. ①권 13장 ③-1 독해 시간에는 이
자리를 「1차 정보/2차 정보」라 부른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1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표시가 없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이 둘이다.

관계	두 문장 사이에 있는 것. § 294 — 반드시 있다
표시	그 관계를 지면에 드러내는 낱말. 없을 수 있다

교실에서 이 둘이 붙어 있다. 「연결어가 없으니 관계가 없다」로 읽고, 그래서
「문맥으로 알아라」가 된다. 관계는 있고 표시가 없는 것이다.

2 그러면 무엇으로 아는가 — 매달리는 쪽이 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아 본다.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둘 중 하나를 지우고 남은 것이 홀로 서는지 본다.

지운 것

남은 것

홀로 서나

앞

We took the long way round.

선다 — 다만 왜 그랬는지가 없다

뒤

The road was closed.

선다 — 그리고 아무 결과도 없다

둘다 서는데 잃는 것이 다르다. 앞을 지우면 까닭을 잃고, 뒤를 지우면 하려던 말을 잃는다.

하려던 말이 있는 쪽이 주(主)다. 그리고 나머지가 從(從)이다.

이 판정은 낱말이 아니라 「무엇을 잃는가」로 한다.

3 순서를 바꾸면 드러난다

가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나 We took the long way round. The road was closed.

나도 읽힌다. 그런데 다르게 읽힌다. 나는 「돌아갔다 — 길이 막혔었으니까」로 읽히고, 뒤에 온 것이 설명이 된다. 주는 여전히 「돌아갔다」다.

主從은 순서가 아니다. 순서를 바꿔도 주가 따라가지 않는다.

주는 「하려던 말」이고, 순서는 그것을 어떻게 내놓느냐다. 08장

이 순서를 다룬다.

4 세 갈래로 갈리는 자리

그러면 어느 쪽이 주인지 정해지지 않는 쌍은 없는가. 있다.

가 The sky darkened. The wind rose.

나 She opened the box. It was empty.

다 He rang the bell. Nobody answered.

主	어떻게 정하나
가 못 정한다	두 사건이 나란하다. 이 책의 지위 보기로는 어느 쪽이 주인지 못 가른다
나 뒤	앞은 무대를 놓고 뒤가 하려던 말이다
다 뒤	같은 — 「울렸다」가 아니라 「아무도 안 나왔다」가 요점이다

가는 이 책이 스스로 건 조건 하나 의 자리다. 어니언스가 둔 예외가 아니다 — § 294
 는 예외를 안 뒀고, § 300은 발달 서술에 건 범위 한정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언제나 정해진다」고 적지 않는다.
 어니언스는 「반드시」라고 적었고, 우리 절차가 그것을 언제나
 가려내는지는 다른 물음이다.
 그것을 지문에서 재기로 했다. 조건 하나 · 16장
 못 정하는 쌍이 몇인지가 이 책의 값이다.

5 ①권의 실선과 겹치는 자리

①권 22장은 지문을 읽으며 실선 주어가 바뀌는 자리로 문장 경계를 그었고, 이렇게 적었다.

연결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실선 주어는 언제나 있다. ①권 22장 ⑦

§ 294와 같은 것을 말한다. 어니언스는 생각의 층으로, ①권은 형태의 층으로 갔다.

	무엇으로	무엇을 얻나
어니언스 § 294	무엇이 무엇에 매달리는가	主從 — 그러나 세는 법이 없다
①권 22장	실선 주어가 무엇인가	셀 수 있다 — 그러나 주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둘을 겹치면 세는 법이 생긴다. 그것이 16장의 조건 둘이다
 — 실선 주어와 § 294의 主從이 같은 선을 긋는가.
 ①권은 한 편에서 그었고, 이 책은 여러 편에서 어긋나는 자리를
 센다.

⑤ 매핑 위의 자리

좌표: 축3—첫째 층(말음)을 문장 밖으로 민다

①권의 축3은 한 문장 안에서 세 층으로 실현되었다—말음·읽는 순서·무게.

매핑 v1 §0 이 장은 그중 첫째 층을 문장 사이로 옮긴다.

①권

③권 04장

한 문장 안

문장 둘 사이

Jiho | 실 | 받음 ◀ 말음
ticket | 실 | 건넌짐
I | 실 | 건넌

앞 문장 — 從
|
뒤 문장 — 主

무엇을 동사가 말나

무엇이 하려던 말인가

부호가 같다. 실선은 「말았다」이고 파선은 「넘겼다」였다. 여기서는 굵은 선이 주고

가는 선이 從이다. ①권의 부호를 그대로 쓰되 굵기의 대비는 ③권이 더 쓴 것이다—

①권 부호의 배율 적용이라 셈에 안 넣는다. 부록 A-3 · M16 단합

이 장은 매핑에 층을 더하지 않는다. 배율을 바꾼다.

①권 20장 ④-3 이 걸어 둔 조건—**유형을 늘리지 않는다**—이 그대로 선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1 판서—세 걸음

칠판에 세 줄이면 된다.

1걸음 두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보인다

2걸음 하나씩 지워 본다. "이걸 지우면 뭐가 없어지지?"
 앞을 지우면 — 까닭이 없어진다
 뒤를 지우면 — 하려던 말이 없어진다

3걸음 하려던 말 쪽에 굵은 선을 긋는다. 그것이 주다

「지워 보기」가 **이 장의 방법**이다. 학생이 스스로 판정한다.

2 실제로 돌려 본 것 — 문장 쌍 다섯

수업에서 쓸 쌍을 다섯 준다. **넷은 정해지고 하나는 못 정한다**. 그것도 그대로 보인다.

- ① The lights went out. Everyone screamed.
- ② He checked the map twice. He still took the wrong turn.
- ③ It rained all week. The match was cancelled.
- ④ The bell rang. The students stood up.
- ⑤ The kettle boiled. The cat stretched.

主	從이 하는 일
① 뒤	앞이 까닭을 놓는다
② 뒤	앞이 맞세울 것을 놓는다 — 11장
③ 뒤	앞이 까닭을 놓는다
④ 뒤	앞이 무대를 놓는다. 다만 까닭인지 때인지 가 안 정해진다 — 12장 § 292
⑤ 못 정한다	나란한 두 사건. 이 책의 조건 하나

④와 ⑤를 빼지 않는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보이는 것이 이 절차의 신뢰다.

조건 하나 **의 자리는 ⑤다** — 지워 보기로 **主**가 안 갈리는 쌍이고, 16장 이 몇인지 센다.

④는 다른 물음이다 — **主**는 정해지고 **從이 어느 관계인지**가 안 정해진다.

①권 01장 ②-3이 같은 자리에 썼다 —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장이 있다」.

3 「생략이야」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

교사가 가장 쉽게 하는 답이 「because가 생략된 거야」다. 쓰지 않는다.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Because the road was closed, we took the long way round.

둘은 다른 문장이다.

무엇을 하나

나란히 놓은 것

두 사실을 각각 내놓는다. 읽는 사람이 관계를 세운다

because로 묶은 것

앞을 뒤에 딸린 것으로 내려놓는다. 앞은 이제 독립된 주장이 아니다

「생략」이라 하면 두 문장이 같은 것이 되고, 그러면 왜 굳이 나눠
썼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나눠 쓴 것 자체가 선택이다 — 앞의 사실을 주장으로 남겨 두려는
선택. 10장

4 독해 시간에 이미 한 말과 잇기

교사가 두 시간을 다 맡는 경우가 많다.

①권 13장 ⑥-4

독해 시간에 이미 말한 것

문법 시간에 이름을 준다

「이게 1차 정보고 이게 2차야」

主와從 — § 294

「앞 문장이 배경 같아 준 거야」

從이 무대를 놓는다

「여기가 이 단락의 핵심 문장이야」

主가 이어지는 자리 — 05장 · 06장

새로 가르치는 것이 없다. 이미 한 말에 이름을 붙이고 1903년의 절 하나에 붙들어 매는
것뿐이다.

5 학생 질문 셋과 답변 문장

Q. 연결어가 없으면 관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는 있고 표시가 없는 거다. 표시가 없으면 읽는 사람이 세워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쪽으로 세워진다.
지워 보면 안다 — 지웠을 때 하려던 말이 없어지는 쪽이 주다.

Q. 그럼 순서대로 앞이 従이고 뒤가 主예요?

아니다. 순서를 바꿔도 주는 따라가지 않는다.
We took the long way round. The road was closed. — 여전히 돌아간
것이 하려던 말이다.
주는 자리가 아니라 무게다. 자리 이야기는 08장 에서 따로 한다.

Q. 둘 다 중요해 보이면요?

그런 쌍이 실제로 있다. The kettle boiled. The cat stretched. 같은 것.
못 정하는 쌍을 못 정한다고 적는 것까지가 이 방법이다.
어니언스에게 기대지 않는다 — § 294는 예외를 안 뒀고, 이것은
우리 절차의 한계다.

6 3분에 들어가나

이 장의 판서는 세 줄이고, 지워 보기는 말로 한다.

두 문장 옮겨 적기	40초
지워 보기 두 번	50초
굵은 선 하나	10초
	1분 40초

확인 필요 지문 배율에서 이 시간이 서는지는 아직 안 됐다.

① 권 D-20이 지문 한 편에 1분 10초였고, 여기에 主從 표시가
더해진단다.

조건 넷 이 그것을 쟁다. 16장

⑦ 한 장 요약

병렬에도 실질적 종속이 있다

원전이 적은 것

두 문장이 병렬로 나란히 놓일 때,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생각에서 다른 하나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병렬의 모든 사례에는 실질상의 종속이 있다 — 형식상은 아니나.
어니언스 § 294 · 원서 156쪽

두 층을 갈라 놓았다

형태의 층	등위 / 종속	있는 말이 있는가
생각의 층	主 / 從	무엇이 무엇에 매달리는가

오늘 교재에는 이름 둘이 그대로 왔고, 두 번째 자가 안 왔다

어떻게 판정하나 — 지워 본다

앞을 지운다	—	까닭이 없어진다
뒤를 지운다	—	하려던 말이 없어진다

하려던 말이 없어지는 쪽이 主다. 낱말이 아니라 무엇을 잃는가로 정한다

순서가 아니다

순서를 바꿔도 主는 따라가지 않는다.
主는 무게이고 순서는 그것을 내놓는 방식이다

못 정하는 쌍이 있다

The kettle boiled. The cat stretched.
나란한 두 사건. 지워 보기로 어느 쪽이 주인지 못 가른다.
§ 294 는 예외를 안 뒀다 — 이것은 우리 절차의 한계다

①권과 겹치는 자리

어니언스	무엇이 무엇에 매달리나	主從	세는 법이 없다
①권 22장	실선 주어가 무엇인가	셀 수 있다	주인지는 말 안 한다

둘을 겹치면 세는 법이 생긴다 — 그것이 16장이 재는 것이다
